

# 교육청 계약업체 불만 ‘천태만상’

### 공사·물품·급식 계약 업체 설문조사 결과 불편·부당사항 20건... 계약의 요구 등 다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불편·부당사항을 조사했다. 민원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2020년 청렴한 계약문화 조성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도교육청의 물품 계약 점수가 8.08점으로 전년 대비 1.38점 하락하면서 청렴도 제고를 위해 이뤄진 것이다.

조사 대상은 도교육청 소속 기관과 공사·물품·급식 계약을 체결한 업체 905명(응답자 208명)이며 기간

은 지난 6월 3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진행했다.

조사 결과 불편·부당 사항은 총 20건이 나왔다. 업종별로 보면 급식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서류 관련 4건, 공사 관련 3건, 지역제한·지역업체 이용이 2건 등이었다.

주요 민원 사항을 보면 도교육청이 계약조건 외 추가작업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다고 밝힌 업체가 있었으며, 시정조사가 너무 늦어 금액 맞추기 버거움, 인터넷 구매 지양하고 지역업체 우선 이용, 담당 감독관의 업무 파악 능력 미달, 급식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영세업체 진입장

벽, 급식실 환기시설 점검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관련 부서인 교육시설과·체육건강과·교육재정과·안전복지과에 전달돼 개선방안이 요구됐으며, 지난달 22일 열린 청렴제주교육 실무협의회에서도 공유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계약 외 작업을 요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지도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식재료 최저가 낙찰방식은 계약 방법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업체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자영업자를 위해 2000만원 이하의 물품은 인터넷 구매를 지양하는 의견은 정책적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더위엔 물놀이 무더운 날씨를 보인 3일 제주시 애월읍 곡지해수욕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강희만기자

## 폭염 지속... 어르신 안전관리 강화

### 노인일자리 활동시간 단축 독거노인 냉방비 지원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독거노인 및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냉방비 지원 등 폭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노인일자리 참여자(9367명)에 대해서는 휴지기 기간 공익형 일자리 활동시간을 단축(30→20시간)하고, 무더위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에는 야외활동 자제 및 휴식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야외활동이 많은 사업단의 경우 오전 중 활동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과 협의해 시간을 조정했다.

또 폭염 대비 행동요령 안내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방송 등을 활용해 폭염 발령상황 및 무더위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도는 독거노인들이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여름철 건강관리·폭염 시 행동 요령 등을 교육하고, 폭염특보 시에는 전화·방문 등 일일 안전확인 보고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드림지원사업으로 독거노인 3800여 명에게 냉방비(1인 연 8만 5000원)를 지원하고, 민간기업 및 단체 후원을 통해 선풍기 등 냉방용품도 제공했다.

경로당은 지난달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어르신 무더위쉼터로 이용하도록 개방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손소독제·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비치했다. 자생단체의 주·회 방역 외에 매일 자체소독과 주기적인 시설소독을 실시하고,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하절기 동안에는 2억9100만원을 투입해 448개 경로당에 4단계로 나눠 면적에 따라 50만~80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 주거급여 76가구 접수리 제주시, LH와 협약 지원

제주시는 올해 주거급여를 받는 76가구를 대상으로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집수리 사업은 제주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LH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정경운)에서 진행한다.

사업 대상은 주거급여법(제8조)에 따라 주거급여대상자 중 자가주택을 소유·거주하는 사람에게, 주택구조 노후도(구조안전·설비상태·마감상태)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 지원한다. 보수범위에 따라 올해 ▷대보수(지붕·옥실·주방 개량 등) 18가구 ▷중보수(창호·단열·난방공사 등) 14가구 ▷경보수(도배·장판 등) 44가구를 선정, 예산 5억원 범위에서 수선이 진행된다. 수선비용과 별도로 장애인가구에는 최대 380만원, 고령자가구에는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시는 7월까지 올해 목표가구 중 27세대에서 공사를 진행했고,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83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수선유지급여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물영아리 입구 생태공원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재정부담했다. 사진은 물영아리 전경. 한라일보DB

## 물영아리 입구 생태공원 새단장

###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정비 관광 연계 휴게공간 등 조성

물영아리 입구 생태공원이 새단장했다.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통해 사업비 5500만원을 들여 물영아리 입구 생태공원에 휴게공간 등을 조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제2차 탐사르습지도시 최종후보지인 물영아리의 ‘탐사르습지도시 국제인증’과 연계해 습지 보호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습지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새롭게 정비된 공원은 야자매트 교체 등 기본적인 정비를 포함해 방문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산책로변의 관목을 전정하고 물의자를 설치해 휴게 공간을 조성했다. 수로 위로 목교도 설치했다.

현승민 수망리장은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이 더욱더 쾌적한 환경에서 힐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읍과 협의해 생태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물영아리는 2016년 1만3250명, 2017년 1만9142명, 2018년 2만 2080명, 2019년 2만7909명 등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 370분 기립... “수능감독관 처우 개선”

제주교사노동조합(이하 제주교사노조)은 3일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은 수능감독관 처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교사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능 시험 감독 차출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호소하는 교사

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올해 수능은 매우 예민한 상황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에 수능감독관을 늘려 감독 시수를 줄이고, 감독관을 위한 기립이 의자를 배치해 돌발상황에 대처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능감독관은 움직이지 않는 정자세로 서서 평균 240분에서 최대 370분까지 감독을 해야돼 실신하는 일도 벌어진다”며 “학생들의 인생이 걸린 시험인 만큼 당일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은범기자

## 노후화된 산불감시초소 서귀포시 2곳 교체·정비

서귀포시는 기존 65개 산불감시초소 중 노후화 된 초소 2곳을 교체·정비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달 중 잠복과 수풀이 우거져 진입이 어려운 곳을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도록 시설을 보강하며 진입로를 정비해 산불감시뿐만 아니라 탐방객이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산림 내에 위치한 무인감시카메라, 산불예방 안내방송 시스템 등 재난안전 시설을 사전에 정비해 집중호우 등의 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오은지기자



## 제주 미래 농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농업인 속의 토론회 개최 결과 알림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0년 7월 14일(화) 제주 칼호텔에서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관, 개최한 “제주 미래 농업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농업인 속의 토론회”가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참여로 농업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 도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게 됨을 농업인 토론회 참석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도출된 내용들이 향후 제주농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 농업인 및 도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제주농업의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기틀로서 활용코자 주된 내용들을 관련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토론회 결과 주된 내용

- 1. 현재 제주 농업의 문제점**
  - 비체계적인 유통 및 고가의 물류비용
  - 저출산·고령화·여성화로 인한 인력난
  - 단작 품종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
  - 산지폐기 ○ 취약한 저장장성
- 2. 생산·유통과정에서 폐기되는 농산물을 처리 방안**
  - 신뢰할 수 있는 전수 통계조사를 기반으로 계획된 생산과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
  - 통합된 물류 및 가공시설의 투자 유치 및 지원
  - 다양한 유통망(생산자 직거래, 협동조합 등)을 위한 체계 및 플랫폼 구축
- 3. 제주지역 농산물의 다양화 방안**
  - 다양한 작물에 맞는 행정의 보조적 지원
  - 행정의 철저한 시장조사로 필요한 대체작물 재배기술 교육
  - 지속가능한 농업소득이 보장되는 체계적인 유통 시스템 구축
- 4. 제주도 행정과 농업인 관련 단체·농업인들의 역할**
  - 제주도 행정: 지속적·안정적인 정책과 보조사업 조건의 완화 및 신청의 간소화
  -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 제주도와 농협 주도하의 확실한 통계조사를 통하여 과잉생산 방지 및 지속적인 영농지도·농업인들의 권익보호 및대변자 역할
  - 농업인: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 및 비상품 유통 근절 협조, 동종 품목끼리 생산자 단체 구성 및 상호 협력

**토론회 결과 관련 문의**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회 장 강 수 길 (010-3694-3896), 사무처장 이 석 근(010-3699-0278)

##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